



THE 50th ANNIVERSARY 1954~2004
50

I N H A
UNIVERSITY

간행사

우리 인하대학교는 올해, 뜻 깊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학 이후 과학교육의 최고 학부로서 명성을 지켜온 인하대학교는 이제 민족의 배움터를 넘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비전과 사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仁荷 50年'의 역사는 한국전쟁의 피해를 딛고 조국의 산업화에 기여할 과학기술교육, 인재육성의 외길이었으며 한국현대사의 역정과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발의로 설립된 우리 대학은 진정한 민족대학의 응지를 안고 출범하여 첫 졸업생을 배출하던 1958년에는 뜻하지 않은 2년제 직업학교로의 격하가 시도되었으며, 4·19 혁명 이후 재단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68년, 우리 대학은 한진그룹이 재단을 인수함으로써 종합 대학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온 오늘, 민족 굴지의 학문과 지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도약과 발전은 인하인만의 노력과 성취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대학의 발자취 속에는 하와이동포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조국부강의 염원이 있으며, 자립경제에 바탕을 두고 선진 국가로 도약하려는 국민 모두의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교50주년을 맞는 인하의 영광은 인하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겨레 모두와 함께 나누어야 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인하대학교는 민족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연구·대학행정의 세계화를 구현하는 'Global Inha Vision 2020'의 실천을 통해 국내 U-5 대학, 세계 우수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반세기의 비전과 로드맵은 우리 인하대학교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인하가족의 무한한 잠재력을 표출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혁신(INnovation)과 화합(HAmony)의 정신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하대학교는 수년 전부터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10대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仁荷50年 史'의 발간은 우리 대학의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반세기를 지향하는 대학정신, 시대정신의 소산으로써 우리 대학 발전의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수년 간 교사 편찬을 위하여 귀중한 연구시간을 할애하신 집필위원 등 편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무를 맡아준 기념사업본부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2004년 4월 24일

인하대학교 총장 **홍승용**



기념사

대학의 역사는 국가건설을 통한 민족 중흥의 역사입니다. 교육은 인간의 삶 전체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개인의 역할을 신장하고 집단의 중견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배가하며 다양한 시민사회를 구성해 나갈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서 고급두뇌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전통적 기능인 연구, 교육, 봉사의 성과와 면면히 이어온 전통을 올바르게 살피, 기록으로 정리한 大學史의 편찬은 과거의 경험을 자산으로 불확실성의 미래를 관리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보고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하대학교가 올해 개교 5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50星霜의 모습을 솔직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仁荷五十年史를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인하가족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평소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해 왔으며,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교육 기관을 육성해 보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세계의 대학들은 학문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들에게 커다란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이듯이 우리는 설 새 없이 밀려오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의 역할 신장을 위해 슬기롭고 창조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훔볼트 재단은 15년 동안의 달력을 한 번에 수록, 발간하였으며, 독일의 수첩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세분화하여 일상의 계획성과 미래에의 의지를 실생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사고의 집중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하대학교의 50년 역사를 기록한 仁荷五十年史의 발간을 계기로 과거에 대한 담백한 평가는 물론 현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우리 대학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미래상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반세기 인하의 발전이 있기까지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역대 총, 학장을 비롯하여 이사진과 지 역사회 유지 여러분께 심심한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仁荷五十年史의 편찬과 집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편찬위원과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인하가족의 건승과 함께 인하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4년 4월 24일

학교법인 인하학원 이사장 **조양호**



범례

1. 인하대학교에서는 이미 《仁荷二十年史》(1974년), 《仁荷三十年史》(1984년), 《仁荷四十年史》(1994년)를 편찬한 바 있다. 이번 《인하 50년사》는 이미 정리된 40년간의 내용을 압축하되, 그동안 소홀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온 개교 초기사 부분을 중점 보완하였으며, 최근 10년(1994~2004)의 내용은 대학 경쟁력 제고면에서 국제화를 지향하여 온 점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

2.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나누었다. (상권)에서는 50년사를 통사체제로 서술하되, 이로서는 내용 소개가 소략해지는 대학과 대학원 및 연구소와 부속기관은 종전대로 분류사 형태로 정리하였다. (하권)은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제1편에서는 사진을 통하여 인하5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제2편에서는 각종 자료와 지표 및 연표를 수록하였다.

3. (상권)의 제1편에서 제3편은 통사체제로 인하의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1968년 9월 한진그룹의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인수를 기준으로 대별하되, 최근 10년간을(1994~2004) 또 한 분기로 삼아 전체 3시기로 설정하였다. 1기는 1954년 설립으로부터 기술교육의 요람으로 기초를 다진 시기이고, 1968년에서 개교 40주년이 되는 1994년까지는 한진에 의한 재단 인수이후 종합대학교로의 발전과 중장기발전계획을 착실히 수행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이다. 나아가 1994년 이후 최근 10년간은 학부제로의 개편, 대학경영의 혁신과 국제수준의 연구역량을 배양하여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웅비하려는 흐름을 감안한 것이다.

4. 상권의 제4편에서는 대학과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다루었다. 40년사의 산만한 체재를 보완하여 각 학과와 전공별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학부별 교과과정은 본문에 수록하였으나, 전공별 교과과정은 편람의 성격이 강하여 (하권)의 제2편 제5장으로 별도 정리하였다. 다만 사범대학의 경우는 학부 없이 학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과과정은 본문에 수록하였다. 제5편은 연구소와 부속기관 그리고 학내 자치기구인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을 서술하였다. 연구소와는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국책연구센터는 편의상 연구소에 잇대어 설명하였다.

5. (하권)의 제1편은 사진으로 본 인하 50년의 발자취이다. 먼저 인하대학교의 캠퍼스의 변모과정을 살펴보고, 설립에서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나타내는 사진을 연대별로 나열하였으며 이후 입학과 졸업, 강의와 연구, 행사와 축제 등 주제별로 사진자료를 수록하였다. 제2편에서는 자료와 연표를 통하여 인하 50년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법인과 대학의 역대보직자 및 교직원 명단 등 기존의 서술에 더하여 지표상으로 알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각 대학 전공별 교과과정과 연표를 수록하였다.

6. 《인하50년사》의 편찬 간행은 '인하5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담임하였다. 편찬위원장은 부총장 당 연직으로 金裕恒 교수(이과대학 화학과), 편찬위원에는 金基成 교수(공과대학 선박해양공학과), 車基元 교수(이과대학 화학과), 李成柱 교수(경영대학 경영학과), 尹明九 교수(사범대학 국어교육과), 金敏培 교수(법과대학 지적재산권학과), 金萬圭 교수(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禹敬子 교수(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姜在勝 교수(의과대학 의예과)가 위촉되었다. 편찬위원장은 2003년 9월부터 부총장을 담임한 黃善根 교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가 새로이 위촉되었다. 집필은 인문학부 사학과와 徐永大 교수, 姜玉楚 교수, 朴恩卿 교수, 尹承駿 교수, 李榮昊 교수, 李俊甲 교수와 박물관의 尹龍九 학예연구사에 위촉되었다.

7. 50년사 편찬에 따른 교내외 협조는 대외협력처장(鄭榮泰 교수, 2003년 3월 이후는 趙碩衍 교수)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崔錦行 부처장, 趙成培 팀장이 담당하였다.

8. 《인하50년사》의 (상권) 집필자 및 (하권)의 자료 작성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권 제1편 제1장 이영호 교수, 제1편 제2장 및 제2편 제1장 윤승준 교수, 제2편 제2장 및 제3편 제1장 박은경 교수, 제3편 제2장 서영대 교수, 제4편 이준갑 교수, 제5편 강옥초 교수가 담당하였다. 하권의 사진 및 각종 자료 작성과 교정 실무는 박물관의 윤용구 학예연구사와 기경량 연구원 및 박은미·김정훈 조교, 사학과의 임원시(3년)·이용우(3년)·사민정(4년) 군이 담당하였다.